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한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 비교분석

우한성*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igration Types of the Youth in Non-metropolitan Areas by using a Hierarchical Logit Model

Hansoun Woo*

요약: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먼저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실태 및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후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을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유형별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관찰되었고, 각각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 또한 서로 다른 변수(개인 및 지역수준)들의 묶음(bundl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비수도권의 청년인력 확보 정책은 다양한 이주선택의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적 맥락이 반영될 때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청년인재 유출, 이주유형, 청년정책, 노동시장, 위계로짓모형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types of the youth in non-metropolitan areas vary by region and has the primary objective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each migration type. First,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migration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in non-metropolitan areas was conducted, and then a hierarchical logit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migration types separat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types vary by region, and each determinant of migration types is composed of different bundles of variables(individual and regional levels). In the future, policies aimed at securing young workforce in non-metropolitan areas will be more effective when they take into account various determinants of migration choices and reflect the regional context.

Key Words : Brain drain, Migration Types, Youth Policy, Labor Market, Hierarchical Logit Model

* 주저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책임연구원 (Senior Researcher, Industrial Loc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woo@kicox.or.kr)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현재 생산, 고용, 기업, 인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3). 이에 더해 저출생, 초고령화,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맞물려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한국고용정보원, 2023).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격차의 문제를 넘어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정의의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다. 우수한 인적자본이 집중되는 몇몇 혁신지역은 고용 기회, 소득, 보건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과 혜택이 공유되지만, 이 외 지역은 상당한 불평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Muro and Perry, 2020).

실제로 국내의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연령별로는 20대 중심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순 이동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김태환 외, 2020). 지역의 인구 감소는 본질적으로 인구 유출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지자체별로 청년인구 유치 노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박진경·김도형, 2020). 지역발전은 복잡다단한 현상이나 우수한 청년인재 확보가 지역발전의 핵심요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노동과 자본 배분이 중요한 산업시대를 거쳐 지식경제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은 지역발전에 있어 창의적인 청년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지역발전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 역내의 우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설명해 왔다(류장수, 2015). 지역 간 인적자본의 격차는 지역발전 수준의 격차로 직결되고, 특히 청년인력 확보에 따른 역내 인적자본의 축적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Faggian and McCann, 200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정책 기조로 채택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출범, 최근에는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며 다양한 정책을 기

획, 실행해 왔지만 수도권 집중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강조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지방인재의 유출 심화 문제를 중요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갖는 시의성을 잘 말해준다. 비수도권이 겪는 청년인재 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방식의 유효성에 의문을 갖고 현재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발생 가능한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비수도권 순환형, 비수도권 회귀형, 수도권 유출형)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정요인의 묶음(bundle)을 식별함으로써 지역적 맥락이 고려된 정책지원 영역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즉 비수도권에서 순환하는 청년인재의 잔류 유인 강화, 우수한 역외유출 인재를 다시 지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노력, 수도권으로의 유출 완화 등은 획일적인 정책 접근법으로는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인재 확보를 위한 지역정책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의 논의를 보완하고 한 단계 확장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활용한 기본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20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이고, 시군구 기준의 다양한 지역 데이터를 병합하여 최종 실증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상당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미시적 차원의 개인 특성 또는 거시적 차원의 지역특성 변수들을 통해 청년 이주의 결정요인을 설명하였다(류장수, 2015; 이찬영·이흥후, 2016; 문영만·홍장표, 2017; 정재현 외, 2019 등). 하지만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논의가 비수도권 인재유출 현상을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유의했지만, 지역인재 확보 측

면의 지역발전전략에 정밀하고 실제적인 정책 함의를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비수도권의 청년인재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차별화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주(migration) 관련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이주유형별 현황과 함께 전국 수준의 지역 간 이동과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간 특성 차이를 개인과 직업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4장에서는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마무리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다양한 이주(migration)이론들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구 단위에서의 이주 결정 동기와 과정, 그리고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이주 흐름의 설명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다(Bueno and Prieto-Rosas, 2019). Massey *et al.* (1993)은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을 두 가지 범주, 시작(initiation)과 확산(perpetuation) 이론들로 분류한 바 있으며, 동 연구는 이주이론 연구의 모태로 참고되어 진다. 이주의 시작(initiation) 관점으로 분류되는 이론에는 ‘노동 이주의 신경제학 이론(new economics of labor migration theory)’,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 ‘세계 시스템 이론(world system theory)’을 들 수 있다. 노동 이주의 신경제학 이론은 이주를 개인 수준이 아닌 가족 또는 가구 수준의 의사 결정으로 바라보고(Stark and Bloom, 1985) 주로 저개발 국가 내 가구의 국가 간 이주를 설명한다.

이중 노동시장 이론과 세계 시스템 이론은 산업 발전과 고령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노동시장 구조 그리고 시장경제 논리에서 비롯되는 지속적인 저기술 외국인 노동력 수요의 확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이주의 확산(perpetuation) 논리로 분류되는 이론에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 ‘제도 이론(institutional theory)’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국제 이주는 친인척 또는 지인의 이주 경험이 전이되는 상황을 중요시 하고, 후자는 특히 취약계층의 국가 간 이주 과정을 조정하는 제도나 기관의 행위에 주목한다.

이 외에도 전통 노동시장이론인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서는 이주 결정이 인적자본 축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특히 젊거나 고학력자일수록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해 또 다른 노동시장으로 이주할 확률이 높다(Keereman and Szekeley, 2010; Czaika and Parsons, 2017). 이와 관련하여 Lulle *et al.* (2021)은 인적자본의 역동성이 장소 구체적(place-specific)이며 일생에 걸쳐 변모하기 때문에 이주 결정에서 비롯되는 공간성(spatiality)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적자본과 이주의 관점에서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지역 간 이주 현상을 실증 분석하는 모델링 방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법을 따른다(Stillwell, 2005). 첫 번째는 개인 단위의 이주 결정 과정을 다루는 미시적 접근법이다(김동현 외, 2012; 류장수, 2015; 이찬영·이흥후, 2016; 문영만·홍장표, 2017; 정재현 외, 2019). 이때 머무를 것인지 또는 이주할 것인지, 그리고 이주한다면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등의 2단계에 걸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히는 데 집중한다(Maier and Weiss, 1991; Stillwell, 2005). 이러한 의사결정은 주로 효용 극대화와 직결된다. 따라서 미시적 접근법을 취하는 이주 관련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잠재적 종착지에서 비롯되는 특성 변수들을 주로 사용한다. 반면 거시적 접근법을 취하는 분석에서는

종합적인 이주 흐름을 강조하고(Stillwell, 2005), 노동 및 주택시장의 맥락에서 이주 이슈들을 다룬다(Chen and Rosenthal, 2008; Etzo, 2011; Albouy and Faberman, 2018). 즉 사람들의 이주 결정이 풍부한 일자리 그리고 저렴한 주택시장의 형성에서 비롯되는지를 주된 연구논의로 삼는다.

이처럼 다양한 이론적 기반 그리고 분석의 접근방식에 따라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성장의 원인을 인적자원의 편향에서 찾기 시작하며(박우식 외, 2011), 그 결정요인과 특성, 영향들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논의를 이어왔다. 관련하여 이찬영·이흥후(2016)는 이주 선택이 거주지와 전출지 간 비교를 통한 효용극대화 과정임을 고려하여 청년층(25~29세)의 지역 간 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001~2014년 기간 16개 시도 대상의 지역패널자료를 활용한 양방향(two-ways)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입-전출지에 따른 유형별 분석 결과 전 지역 간 이동에서는 전출지의 임금과 취업률, 혼인율이, 비수도권 지역 간 이동에서는 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에서는 전세가격이 수도권 전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도권 거주비용의 증가로 인해 향후 수도권 인재 유출의 감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수도권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인재 유출 현상은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환 외, 2020).

반면 류장수(2015)는 지역 인재의 유출 과정을 1차(고등학교→대학교), 2차(대학교→직장)로 구분하여 규모 및 특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개인적인 특성 변수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유출과정에서 드러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차 유출 규모가 1차 유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출 요인에는 양호한 가정배경, 대학 학점, 영어성적 등이 관찰되었다. 지역 간 이주 결정이 전입, 전출지 기반의 노동시장, 산업구조, 환경적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해당 연구 모형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판단된다.

류장수(2015)의 연구가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의 유출 과정을 1, 2차로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요인을 찾는 시도였다면, 정재현 외(2019)의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각각의 유출과정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재현 외(2019)의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의 수도권 유출, 즉 진학과 취업을 위한 각각의 유출이 상호 연결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4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한 로짓 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 축적 경험이 있는 개인일수록 그리고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수도권 유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에도 수도권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의 대학 진학을 통한 유출이 직장 취업을 위한 유출과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이 지역 인재 유출의 결정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였다면, 특정 지역 인재 유출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한 논의도 존재한다. 관련하여 박우식 외(2011)는 지역의 인재 유출이 지역경제와 사회에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을 세 가지 관점(소비, 생산, 외부효과)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인재 유출에 따른 경제력 손실이 심화 및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지역 간 이동 또는 큰 틀에서의 이주 관련 논의를 수행한 해외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주와 어메니티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에는 Albouy and Faberman(2018)과 Chen and Rosenthal(2008)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Lulle *et al.*(2021)의 연구는 청년 이주 연구에 관한 새로운 의제를 인적자본이론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먼저 Albouy and Faberman(2018)은 기술 수준별

노동자의 이주와 도시 어메니티 소비의 생애주기 간 관계를 주요 논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기술 수준에 따른 인력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이주)하는지, 생애주기에 걸친 이주 패턴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심도있게 고찰한 연구이다. 동 연구는 도시 어메니티가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이주 결정의 중요 요인을 설명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특징은 고기술 인력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 and Rosenthal(2008)은 사람들의 이주가 일자리 또는 어메니티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가구들은 따뜻한 해안지역과 비대도시권 지역을 선호하는 반면 기업은 크고, 성장하는 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도시에는 고속권 인적자본 비중이 높았고, 어메니티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도시에는 퇴직자들이 밀집해 있었다. 개인 수준에서는 젊고 고학력일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공간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Lulle *et al.*(2021)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연구의 관점에서 청년 이주에 관한 새로운 의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지식, 공간성(spatiality), 일시성(temporalities) 등이다. 먼저 지식의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인적자본 이론에서 바라보는 고기술 또는 저기술 이주자 개념이 아닌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이주를 결정하는 모든 개인은 아는 것이 많고(knowledgeable) 학습의 잠재력을 가진 자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간성(spatiality)이다. 공간성은 장소 지향적인 성격을 띠는 인적자본의 역동성(dynamics)과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축적과 이주 결정은 함께 중요한 연구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시성(temporalities)이다. 즉 다양하고,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이주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실증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미시적, 거시적 접근법에서 다루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이주 결정에 있어 개

인과 지역 수준의 변수를 동일선상에서 분석함으로써 모형의 적합성을 과다 추정하거나 결과해석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희연·심재현, 2009; 김동현 외,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청년의 유형별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수준을 위계구조에 따라 개인과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반영할 수 있는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방법론과는 차별화를 두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논의가 전국 수준의 노동 이주,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주 등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의 이주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유형을 세분화하여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차별점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이 중요 국가정책 어젠더로 자리잡은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환 외, 2020; 김태환 외, 2021a, 김태환 외, 2021b).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다양한 영역에서 비롯되는 공간적 불균형의 심화가 지역인재 유출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바라본다(문영만·홍장표, 2017; 이상림, 2020). 따라서 비수도권 청년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 비교분석의 시도는 관련된 선행연구 논의를 한 단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는 지역의 청년정책 입안자들에게도 더욱 실제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실태 및 특성

1) 이주유형별 지역 특성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2019년 기간 수도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89%로 비수도권의 0.06%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그

결과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기준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상황이다. 주목할 부분은 연령대별 수도권 인구 유입 현황이다. 실제로 대학생과 취업 연령인 20대의 인구 유입이 전 연령 유입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약 80%에 육박한다(김태환 외, 2020). 이처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는 연령대는 청년층이며, 지역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 출신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일반적으로 2단계에 걸쳐 나타난다(김기승·정민수, 2013; 류장

수, 2015; 정재현 외, 2019). 즉 1차 유출은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2차 유출은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가 졸업 후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획득하여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출신 청년의 이주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표 1).¹⁾ 먼저 수도권 유출형은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가 대학 진학(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을 거쳐 수도권에 일자리를 획득하여 이주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비수도권 순환형으로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가 비수도권의 대학 졸업 후 비수도권에 일자리를 구해 잔류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회귀형이다. 동 유형은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후 다시 비수도권 일자리를 획득하여 회귀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앞서 분류한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유형별 현황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표 2).²⁾ 먼저 수도권 유출형으로 분류되는 사례 수 기준의 지역

표 1.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 구분

유형 구분	소재지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수도권 유출형	비수도권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순환형	비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회귀형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표 2. 비수도권 청년층의 지역별 이주 유형 현황

지역	수도권 유출형		비수도권 순환형		비수도권 회귀형		전체 사례 수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부산	186	25.4%	527	72.1%	18	2.5%	731
대구	181	26.5%	487	71.2%	16	2.3%	684
대전	124	29.2%	280	65.9%	21	4.9%	425
광주	94	24.5%	274	71.5%	15	3.9%	383
울산	65	20.6%	240	76.2%	10	3.2%	315
강원	118	41.1%	150	52.3%	19	6.6%	287
충북	135	32.8%	237	57.5%	40	9.7%	412
충남	172	36.4%	259	54.8%	42	8.9%	473
전북	132	30.9%	272	63.7%	23	5.4%	427
전남	86	23.2%	264	71.4%	20	5.4%	370
경북	162	26.9%	413	68.5%	28	4.6%	603
경남	219	25.8%	588	69.3%	42	4.9%	849
제주	28	32.2%	57	65.5%	2	2.3%	87
세종	4	23.5%	12	70.6%	1	5.9%	17
비수도권 전체	1,706	28.1%	4,060	67.0%	297	4.9%	6,06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주: 음영 처리는 각 유형별로 비수도권 전체 수준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수치를 표시함

별 비중은 강원,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강원의 경우는 수도권 유출형 비중이 41.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연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경향이 높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순환형의 경우 수도권 유출형 우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울산이 7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비수도권 회귀형의 경우 전체적인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충청권(충북, 충남)이 가장 두드러진 수치를 나타냈다. 각각의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유출형과 비수도권 회귀형에서 두드러지는 지역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수도권 유출 비중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역내로 회귀하는 비중도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은 이주유형별 지역 현황의 상대적인 위치를 시각화한 상자 그림이다. 이에 따르면 강원은 수도권 유출형 비중이 가장 크고, 비수도권 순환형 비중은

가장 작은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반면 울산은 수도권 유출 비중은 가장 작지만 비수도권 순환형 비중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비수도권 회귀형 비중은 가장 큰 편이지만 비수도권 순환형 비중은 가장 작은 지역 중 한 곳으로 관찰된다.

2) 개인, 직업 요인에 따른 청년이주 실태와 특성

본 절에서는 전국 수준에서의 지역 간 이주와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주 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개인적, 직업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는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주 특성이 전국 수준의 지역 간 이주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먼저 표 3은 전국 수준에서의 지역 간 이주 현황을 정리한 결과이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20 대졸자 직업이동조사이고 총 표본수는 10,654명이다. 각 특성 요인별로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시(이하 ‘1차 이주’)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하게 된 경우(이하 ‘2차 이주’)의 지역 간 이주 사례 수와 비중을 각각 산출하였다. 이때 지역 간 이주는 광역자치체 간 이주를 의미한다.

전국 수준의 지역 간 이주에서 개인특성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1, 2차 이주 모두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1차 이주의 경우 예체능, 교육 전공 진학자들의 이주 비중이 높았고, 2차 이주에서는 공학, 의약, 예체능 전공자들의 이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1차 이주에서 교육대 진학자의 비중이, 2차 이주는 4년제 대학 출신의 이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2차 이주에서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 졸업 평점이 4.0 이상인 경우 이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전국 수준에서 직업특성 요인별 2차 이주 현황을 살펴보자. 산업분류³⁾에 의하면 기타를 제외하고 지식기반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주 비중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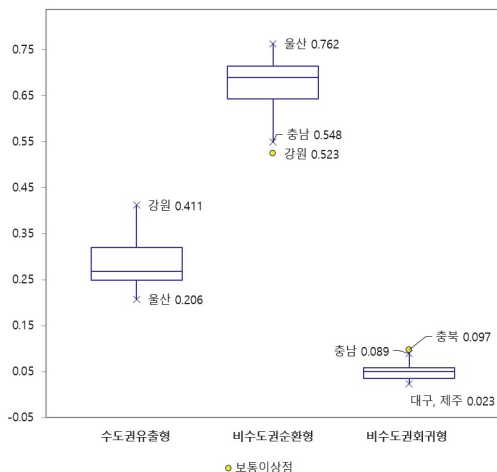


그림 1. 상자 그림(box plot): 이주유형별 지역 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주. 박스로 표시된 영역은 분위 기준으로 상위 25~75%를 의미하며, 박스 내 가로선은 중위값(median)을 박스 상, 하에 세로 선은 아웃라이어(○)를 제외한 변동성(최대값, 최소값) 구간을 의미함

표 3. 전국 수준에서의 지역 간 이주 현황: 개인 및 직업 특성 요인을 구분하여

구분			지역 간 이주 사례 수 및 비중			
			(1차) 고등→대학		(2차) 대학→직장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개인 특성 요인	성별	남성	3,043	57.4%	3,103	58.5%
		여성	2,992	55.9%	2,846	53.2%
	전공계열	인문	705	57.2%	635	51.5%
		사회	1,188	55.5%	1,097	51.3%
		교육	490	59.8%	441	53.8%
		공학	1,748	55.6%	1,885	60.0%
		자연	736	55.3%	707	53.1%
		의약	511	53.3%	570	59.5%
		예체능	657	63.8%	614	59.7%
	학교 유형	2~3년제	976	44.2%	1,095	49.6%
		4년제	4,918	59.8%	4,725	57.5%
		교육대	141	62.4%	129	57.1%
	대학원 진학여부	유			373	40.6%
		무			5,576	57.3%
졸업평점	3.0 미만			399	56.1%	
	3.0~4.0 미만			4,340	55.6%	
	4.0 이상			1,210	56.6%	
산업분류	지식기반제조업			773	62.7%	
	전통제조업			236	53.3%	
	지식기반서비스업			2,268	57.5%	
	전통서비스업			2,333	52.6%	
	기타			272	65.4%	
고용형태	정규직			4,426	58.7%	
	비정규직			1,486	48.9%	
기업체 규모	100인 미만			2,376	54.9%	
	100~300인 미만			630	55.0%	
	300인 이상			2,248	59.1%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1,610	47.6%	
	200-400만원 미만			4,093	60.0%	
	400만원 이상			245	54.7%	
일자리 만족도	만족			3,233	56.1%	
	보통			1,943	54.9%	
	불만족			773	57.3%	
교육-일자리 매치	과잉교육 미스매치			1,289	55.0%	
	매치			3,645	55.3%	
	과소교육 미스매치			1,015	59.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주 1) 1, 2차 이주의 요인별 비중은 (요인별 사례 수/요인별 총 응답자 수)로 산출하였고, 1, 2차 이주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사례들이 존재함

2) 지역 간 이주는 광역지자체 간 이주를 의미함

표 4.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주 현황: 개인 및 직업 특성 요인을 구분하여

구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동사례 수 및 비중				
		(1차) 고등(비수)→대학(수)		(2차) 대학(비수)→직장(수)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개인 특성 요인	성별	남성	507	16.2%	1,038	31.4%
		여성	475	16.2%	980	32.2%
	전공계열	인문	129	21.5%	218	36.2%
		사회	238	20.5%	362	31.4%
		교육	58	10.6%	134	22.4%
		공학	270	14.7%	616	32.1%
		자연	117	14.9%	207	24.9%
		의약	42	6.7%	271	35.5%
		예체능	128	25.9%	210	42.9%
	학교 유형	2~3년제	105	8.9%	222	18.4%
		4년제	860	18.2%	1,748	35.2%
		교육대	17	10.5%	48	26.2%
	대학원 진학여부	유			102	22.8%
무				1,916	32.4%	
졸업평점	3.0 미만			146	34.1%	
	3.0~4.0 미만			1,512	32.4%	
	4.0 이상			360	28.4%	
직업 특성 요인	산업분류	지식기반제조업			209	27.9%
		전통제조업			73	26.6%
		지식기반서비스업			956	42.8%
		전통서비스업			699	25.9%
		기타			63	22.6%
	고용형태	정규직			1,510	33.9%
		비정규직			498	26.7%
	기업체 규모	100인 미만			868	31.0%
		100~300인 미만			254	35.5%
		300인 이상			646	31.9%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518	24.7%
		200~400만원 미만			1,444	35.4%
		400만원 이상			56	31.6%
일자리 만족도	만족			1,018	29.8%	
	보통			688	32.0%	
	불만족			312	39.4%	
교육-일자리 매치	과잉교육 미스매치			451	34.3%	
	매치			1,169	29.3%	
	과소교육 미스매치			398	37.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주 1) 1차 이주(고등→대학)의 요인별 비중은 (요인별 사례수/요인별 비수도권 고교 출신 총 응답자 수)로 산출함
- 2) 2차 이주(대학→직장)의 요인별 비중은 (요인별 사례수/요인별 비수도권 대학 출신 총 응답자 수)로 산출함
- 3) 각각의 이주는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의 이주를 의미함

장 높았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의 경우 그리고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인 이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월평균 임금은 200~400만 원 수준에서 이주 비중이 높았고, 일자리 만족도는 불만족의 경우에서 이주 비중이 오히려 다소 높았다. 교육 수준과 일자리 수준 간 매치⁴⁾의 정도는 과소교육 미스매치의 경우에서 이주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수준의 지역 간 이주에서 직업특성 요인별 2차 이주 현황을 정리해 보면 업종, 일자리 안정성 및 임금, 기업 규모 등이 2차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이러한 추정은 다양한 선행 연구의 주장과도 상당히 일치한다(김기승·정민수, 2013; 류장수, 2015; 이찬영·이흥후, 2016; 문영만·홍장표, 2017; 정재현 외, 2019). 흥미로운 점은 일자리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과소교육 미스매치, 즉 교육수준보다 일자리 수준이 높은 경우에 2차 이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4는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주 현황을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2020 대졸자직업이동조사를 활용하였으나 표본 수는 상이하다.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 표본은 총 6,063명,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표본은 총 6,358명이다. 1, 2차 이주의 요인별 비중은 각각의 표본 수 대비 사례 수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2차 이주가 심각한 것으로 관찰된다.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주에서 개인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기준으로는 2차 이주에서 여성 비중이 다소 높았다. 전국 수준의 지역 간 이주에서 남성 비중이 높았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전공계열별로는 1차 이주의 경우 예체능에서, 2차 이주에서는 예체능과 인문 전공자들의 수도권 이주 비중이 높았다. 전국 수준의 2차 이주에서는 인문, 사회 전공자들의 이주 비중이 낮은 편에 속했으나,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2차 이주에서는 해당 전공자들의 이주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의 인문, 사회 전공자들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이주를 통해 일자리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는 1, 2차 이주에서 모두 4년제 대학 진학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졸업평점의 경우 학점이 낮을수록 2차 이주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나 전국 수준의 2차 이주 현황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 이슈가 반드시 고급인재의 유출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과, 비수도권 내 청년층이 역내 다양한 수준의 일자리 선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표 4에서 직업특성 요인별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2차 이주 현황을 살펴보자. 산업분류에 따르면 지식 기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수도권 이주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또한 전국 수준의 2차 이주에서 지식 기반제조업 종사자의 이주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에서, 기업체 규모는 중규모 기업에서, 월평균 임금은 200~400만 원 수준에서 수도권 이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만족도는 낮을수록, 교육-일자리 매치의 경우 과소교육 미스매치에서 수도권 이주 비중이 높았고, 이는 전국 수준의 2차 이주 현황과 일치한다.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주 특성이 개인, 직업 수준에서 전국 수준의 이주 특성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4.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모형 및 변수 선정

(1) 분석 모형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결정은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전입지(종착지)의 지역 특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증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2020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는 표본 대상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

라 고등학교, 대학 및 직장소재지 등의 지역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위계적 형태의 자료 구축에 용이하다. 이에 결정요인을 위계 구조에 따라 개인과 지역 특성 변수로 구성하였고, 다층자료의 속성을 반영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활용하였다(유정진, 2006; 이희연·심재현, 2009; 김동현 외, 2012; 사호석·우한성, 2020).

위계선형모형은 분석 자료가 다층적 특성을 가질 때 각 수준별 변수의 영향력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고 통계적 오류도 최소화 가능하다(유정진, 2006; 이희연·노승철, 2013). 이에 종속변수가 지역과 같은 상위 분석단위와 개인 수준의 하위 분석단위에 함께 영향을 받는 경우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유정진, 2006; 김동현 외, 2012; 이희연·노승철, 2013).

다양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결정은 성별, 교육, 직업 등 개인적 특성에 의한 영향뿐 아니라 이주 대상 지역의 경제·산업·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층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론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은 2수준 모형이 기본적인데 이때 개인 특성 변수로 구성된 1수준 모형, 지역 특성 변수의 2수준 모형, 그리고 2수준 모형을 1수준 모형에 대입해 전개하면 도출되는 통합모형은 다음과 같이 각각 나타낼 수 있다.

$$1수준(개인) 모형 : Y_{ij} = \beta_{0j} + \beta_{1j}X_{ij} + \gamma_{ij} \quad (식 1)$$

$$2수준(지역) 모형 : \beta_{0j} = \gamma_{00} + \gamma_{01}R_j + \mu_{0j}$$

$$\beta_{1j} = \gamma_{10} + \gamma_{11}R_j + \mu_{1j} \quad (식 2)$$

통합모형 :

$$Y_{ij} = [\text{고정효과}] \gamma_{00} + \gamma_{10}X_{ij} + \gamma_{01}R_j + \gamma_{11}X_{ij}R_j + [\text{임의효과}] \mu_{0j} + \mu_{1j}X_{ij} + \gamma_{ij} \quad (식 3)$$

1수준 모형에서 Y_{ij} 는 j 지역에 속한 개인 i 의 종속변수(결과변수)를 의미한다. β_{0j} 와 β_{1j} 는 개인 수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1수준 계수들이고, β_{0j} 는 j 지역 수준 절편을, β_{1j} 는 j 지역 X 변수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2수준 모형에서 R_j 는 지역 특성 변수를 의미하고, $\gamma_{00} \dots \gamma_{01}$ 은 2수준 계수들로 지역 수준의 변수들이 개인 수준 모형의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γ_{00} 과 γ_{10} 은 2수준 모형이 갖는 각각의 절편을, γ_{11} 은 1, 2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효과가 확인되는 1수준 변수가 확인되지 않아 임의절편모형까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상호작용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통합모형에서 임의효과로 나타나는 μ_{0j} 는 지역 간 2수준 절편의 잔차를, μ_{1j} 는 지역 간 2수준 기울기의 잔차를 의미하고, γ_{ij} 는 1수준 설명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개인별 잔차를 의미한다. 통합모형을 통해 1수준 계수들의 추정이 2수준 계수들($\gamma_{00} \dots \gamma_{01}$)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이 개인 특성과 지역 특성에 함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유형별 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때 이산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 유형별 이주 여부(해당=1, 미해당=0)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가 이산변수일 때 위계선형모형을 로짓모형과 결합한 형태인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이희연·심재현, 2009; 이경환 외, 2014; 사호석·우한성, 2020).

위계로짓모형은 위계선형모형의 추정방식과 동일하게 모수 추가를 통해 무제약모형, 임의절편모형, 임의계수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으나(이희연·노승철, 2013), 본 연구에서는 1수준 설명변수의 임의효과 확인이 어려워 임의계수모형 전 단계인 임의절편모형까지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무제약모형(1단계), 1수준 변수가 투입된 임의절편모형(2단계), 2수준 변수가 함께 투입된 임의절편모형(3단계) 등 각 단계별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단계 : 무제약모형]

$$Y_{ij}[\log(\frac{P}{1-P})] = \theta_0 + \epsilon_j, \quad \epsilon_j \sim N(0, \sigma_\epsilon^2),$$

θ_0 : 표본 전체 평균, ϵ_j : 2수준(지역) 오차
 i : 1수준의 개별단위(개인)
 j : 2수준의 집단단위(지역)

(식 4)

[2단계 임의절편모형 : 1수준 변수 투입]

$$Y_{ij}[\log(\frac{P}{1-P})] = \theta_0 + \theta_1 X_{1ij} + \epsilon_j,$$

θ_1 : 추정계수, X_{1ij} : 1수준(개인) 설명변수

(식 5)

[3단계 임의절편모형 : 2수준 변수 투입]

$$Y_{ij}[\log(\frac{P}{1-P})] = \theta_0 + \theta_1 X_{1ij} + \delta_2 R_{2j} + \epsilon_j,$$

δ_2 : 추정계수, R_{2j} : 2수준(지역) 설명변수

(식 6)

위계선형모형에서는 1, 2수준 오차항이 모두 포함되나 위계로짓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잔차 분산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무제약모형은 전체 평균과 2수준 오차항만을 갖는다(이다예·이희연, 2016). 2, 3단계 임의절편모형은 각각 1수준과 2수준 설명변수가 투입된 모형으로 절편은 임의효과, 계수는 고정효과를 가정하여 추정된다. 모형의 적합성은 2수준 분산 값의 변화를 통해 판단할 수 있고 추정 결과의 해석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해석 방식과 동일하다(이희연·심재현, 2009; 이다예·이희연, 2016).

(2)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20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모집단 중 비수도권 청년(고등학교 기준)을 분석 대상으로 정하고, 항목 값이 누락된 경우 등을 제외한 총 5,211명의 실증분석 표본을 추출하였다.

동 자료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등의 소재지 정보(시도 및 시군구)를 제공하고 있다. 표본에 대한 고등-대학-직장 순의 이주 정보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유형, 비수도권 순환형(비수-비수-비수), 비수도권 회귀형(비수-수-비수), 수도권 유출형(비수-수 또는 비수-수) 등으로 종속변수를 각각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의 유형을 상기와 같이 구분한 것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해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참고하여 개인 및 지역수준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개인수준(1수준) 변수에는 개인, 교육, 직업 특성을 범주로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 변수를, 교육 특성에는 전공, 대학 유형, 학점, 대학원 졸업 여부 변수를 포함하였다. 개인 특성의 차이가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 특성 범주에서는 정규직 여부, 직업 만족도, 교육-일자리 매치 여부를 반영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이주행위의 결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에 각기 상이한 영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여 변수로 구성하였다.

한편 지역수준(2수준) 변수들은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결정에서 다양한 측면의 경제산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어메니티 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삶의 질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이때 활용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국세청의 국세통계, 행정안전부의 한국도시통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도시계획 현황 등이다. 최종 이주 종착지(시군구 기준)의 지역 환경을 나타내는 범주로는 산업, 기업, 창업, 삶의 질 측면을 고려했고, 상응하는 대리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산업 특성 범주에서는 지역산업 일자리의 토대를 이루는 주력제조업⁵⁾, 그리고 청년층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한 지식기반산업⁶⁾의 특화도를 포함하였고 입지계수⁷⁾(LQ: Location Quotient)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기업 특성 범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

한 공간 선호가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리변수로는 중견, 대기업의 분포를 나타내는 300인 이상 기업 수, 영세기업 분포를 나타내는 10인 이하 기업 수를 선정하였다.

다음은 창업 특성 범주이다.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으로 조명받는 창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산업별 창업기업 수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역대

에 활발한 창업 활동은 청년층의 직업선택 다양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이때 산업은 지식기반산업(제조업, 서비스업)과 전통산업(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범주에는 임금 수준, 문화환경, 녹지환경을 나타내는 지역별 평균임금, 문화시설 수, 공원 수 등을 대리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이 각기 상이

표 5. 변수 설계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종속변수		① 비수도권 순환형	0, 1	
		② 비수도권 회귀형	0, 1	
		③ 수도권 유출형	0, 1	
설명변수	1수준(개인)변수	개인 특성	성별	여성: 0, 남성: 1
		교육 특성	전공 분야 (참조: 예체능)	예체능: 0, 인문: 1 예체능: 0, 사회: 1 예체능: 0, 교육: 1 예체능: 0, 공학: 1 예체능: 0, 자연: 1 예체능: 0, 의약: 1
			대학 유형 (참조: 2·3년제)	2·3년제: 0, 4년제: 1 2·3년제: 0, 교육대: 1
			학점	졸업 평점
			대학원 졸업 여부	미졸업: 0, 졸업: 1
		직업 특성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0, 정규직: 1
	직업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교육·일자리 매치 ²⁾		미스매치: 0, 매치: 1	
	2수준(지역) 변수	산업 특성	주력제조업 특화수준	지역별 주력제조업 입지계수(LQ)
			지식기반산업 특화수준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LQ)
		기업 특성	중견, 대기업 분포	지역별 300인 이상 기업 수
			영세기업 분포	지역별 10인 이하 기업 수
		창업 특성	지식기반제조업 창업현황	지역별 지식기반제조업 창업 수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현황			지역별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 수	
전통제조업 창업현황			지역별 전통제조업 창업 수	
전통서비스업 창업현황			지역별 전통서비스업 창업 수	
삶의 질 특성		임금 수준	지역별 평균임금	
	문화 환경	지역별 문화시설 수		
	녹지 환경	지역별 공원 수		

주1) 지역 수준 데이터는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하였음

2) 미스매치의 경우는 과잉교육(교육수준 > 일자리수준), 과소교육(교육수준 < 일자리수준) 미스매치를 모두 포함하였음

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한다. 예를 들면 비수도권 순환형에서는 개인 수준 변수 가운데 정규직 여부가 유의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지만, 비수도권 회귀형, 수도권 유출형에서는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독립변수들의 결과도 이주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각 유형별 결정요인들은 서로 상이한 묶음(bundle)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청년유입책 마련을 위한 비수도권 지자체 그리고 정책기획 및 실행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모형 추정 결과

표 6, 7, 8은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비수

표 6. 위계로짓모형의 추정결과 1: 비수도권 순환형(0, 1)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경우

구분				무제약	임의절편 (1수준 변수 투입)	임의절편 (2수준 변수 투입)
고정 효과(fixed effect)						
절편				0.9963***	1.8051***	1.6553***
개인 수준 (1)	개인 특성	성별	남성		-0.2214*	-0.2484**
	교육 특성	전공분야 (참조=예체능)	인문		0.0022	-0.0426
			사회		0.1755	0.1222
			교육		1.1051***	1.0052**
			공학		0.6740***	0.6216**
			자연		0.6741**	0.6008**
		의약		0.9745***	0.9289***	
	대학유형 (참조=2-3년제)	4년제		-0.8689***	-0.8930***	
		교육대		-0.3396	-0.3959	
	대학성적	학점		-0.1302	-0.1379	
	대학원 졸업 여부	대학원 졸업		0.2733	0.3050	
	직업 특성	정규직 여부	정규직		-0.7550***	-0.7724***
		직업 만족도	직업 만족도 수준		-0.2647***	-0.2669***
교육-일자리 매치		교육-일자리 매치 여부		0.0788	0.0687	
지역 수준 (2)	산업 특성	주력제조업 특화	주력제조업 LQ			0.6737***
		지식기반산업 특화	지식기반산업 LQ			0.3684
	기업 특성	중견, 대기업 분포	300인 이상 기업 수			-0.0739*
		영세기업 분포	10인 이하 기업 수			0.0001
	창업 특성	산업별 창업 현황	지식제조 창업 수			0.0045
			지식서비스 창업 수			-0.0027**
			전통제조 창업 수			-0.0056***
			전통서비스 창업 수			0.0000
	삶의 질 특성	임금수준	평균 임금			-0.0852
		문화환경	문화시설 수			0.0004
녹지환경		공원 수			0.0781	
임의 효과(random effect)						
2수준 분산				10.393	11.199	7.683
표준편차				3.223	3.346	2.771

도권 순환형, 비수도권 회귀형, 수도권 유출형)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각각의 추정결과는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무제약모형, 1수준 변수를 투입한 임의절편모형, 마지막으로 2수준 변수를 투입한 임의절편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모형의 적합도는 2수준 분산 값의 변화를 기준으로 설명 가능한데(이다예이희연, 2016; 사호석·우한성,

2020) 각각의 추정 결과에서는 2수준 변수를 투입한 최종 임의절편모형에서 분산 값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수도권 순환형 추정결과에서는 2수준 분산이 무제약모형에 비해 약 26.1% (10.39→7.68), 비수도권 회귀형 추정결과에서는 약 45.1%(0.94→0.51), 수도권 유출형 추정결과에서는 약 12.6% (20.91→18.28) 감소하였다. 이는 2수준 설명변수들

표 7. 위계로짓모형의 추정결과 2: 비수도권 회귀형(0, 1)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경우

구분			무제약	임의절편 (1수준 변수 투입)	임의절편 (2수준 변수 투입)	
고정 효과(fixed effect)						
절편			-3.240***	-4.6568***	-4.5548***	
개인수준 (1)	개인특성	성별		0.2925**	0.2666**	
	교육특성	전공분야 (참조=예체능)	인문		0.2297	0.1124
			사회		0.0849	-0.0627
			교육		-0.8121	-1.0241**
			공학		-0.4697	-0.6639**
			자연		-0.3733	-0.5774*
			의약		-0.9566**	-1.1301***
	대학유형 (참조=2-3년제)	4년제		0.9328***	0.9787***	
		교육대		0.3129	0.2471	
		대학성적	학점		0.1372	0.1420
	대학원 졸업 여부	대학원 졸업		-0.5120	-0.4728	
	직업특성	정규직 여부	정규직		0.8709***	0.9029***
		직업 만족도	직업 만족도 수준		0.2851***	0.2953***
		교육-일자리 매치	교육-일자리 매치 여부		0.0255	0.0128
지역수준 (2)	산업 특성	주력제조업 특화	주력제조업 LQ		-0.0911	
		지식기반산업 특화	지식기반산업 LQ		-0.1482	
	기업 특성	중견, 대기업 분포	300인 이상 기업 수		0.0030	
		영세기업 분포	10인 이하 기업 수		-0.0000	
	창업 특성	산업별 창업 현황	지식제조 창업 수		0.0037***	
			지식서비스 창업 수		-0.0016***	
			전통제조 창업 수		-0.0024***	
			전통서비스 창업 수		0.0001	
	삶의 질 특성	임금수준	평균 임금		-0.0013	
		문화환경	문화시설 수		0.0085	
녹지환경		공원 수		0.0070***		
임의 효과(random effect)						
2수준 분산			0.941	1.065	0.516	
표준편차			0.970	1.032	0.718	

표 8. 위계로짓모형의 추정결과 3: 수도권 유출형(0, 1)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경우

구분			무제약	임의절편 (1수준 변수 투입)	임의절편 (2수준 변수 투입)	
고정 효과(fixed effect)						
절편			-2.3216***	-2.3142***	-2.7016***	
개인수준	개인특성	성별	남성		0.0971	
	교육특성	전공분야 (참조=예체능)	인문		-0.2610**	-0.0222
			사회		-0.3326***	-0.0634
			교육		-0.5015***	0.1066
			공학		-0.2449**	0.0940
			자연		-0.3763***	0.0997
			의약		-0.1817	0.1772
	대학유형 (참조=2-3년제)	4년제		0.3627***	0.2833*	
		교육대		0.2494	0.3813	
		대학성적	학점		0.0088	0.0198
	대학원 졸업 여부	대학원 졸업		0.3205**	0.2387	
	직업특성	정규직 여부	정규직		0.1680**	0.0364
		직업 만족도	직업 만족도 수준		0.0217*	0.0013
		교육-일자리 매치	교육-일자리 매치 여부		-0.2139***	-0.1676*
지역수준	산업 특성	주력제조업 특화	주력제조업 LQ		-1.3400*	
		지식기반산업 특화	지식기반산업 LQ		-0.3564	
	기업 특성	중견, 대기업 분포	300인 이상 기업 수		0.0700	
		영세기업 분포	10인 이하 기업 수		-0.0001	
	창업 특성	산업별 창업 현황	지식제조 창업 수		-0.0079	
			지식서비스 창업 수		0.0036**	
			전통제조 창업 수		0.0097***	
			전통서비스 창업 수		-0.0000	
	삶의 질 특성	임금수준	평균 임금		0.1438*	
		문화환경	문화시설 수		-0.1932**	
녹지환경		공원 수		-0.0053		
임의 효과(random effect)						
2수준 분산			20.917	20.814	18.286	
표준편차			4.573	4.562	4.276	

이 각각의 종속변수 분산을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음을 나타내며, 표준편차값도 감소한 결과를 보여 2수준 변수를 투입한 임의절편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종속변수를 달리한 각각의 위계로짓모형 추정결과에 따라 설명변수들이 이주유형별로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즉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들이 개인과 지역수준에서 서로 다른 묶음(bundl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각각의 이주유형과 개인수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비교해서 살펴보자. 비수도권 순환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에는 전공분야 특성이 두드러졌다. 예체

표 9. 위계로짓모형(2수준 변수를 투입한 임의절편모형) 추정 결과의 부호 비교 정리

구분		임의절편모형(2수준변수투입) 추정 결과의 부호			
		비수도권 순환형	비수도권 회귀형	수도권 유출형	
개인 수준 (1)	성별	남성	-	+	
	교육특성	교육	+	-	
		공학	+	-	
		자연	+	-	
		의약	+	-	
		4년제	-	+	+
	직업특성	정규직	-	+	
		직업 만족도 수준	-	+	
		교육-일자리매치 여부			-
지역 수준 (2)	산업특성	주력제조업 IQ	+		-
	기업특성	300인 이상 기업 수	-		
	창업특성	지식기반제조업 창업 수		+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 수	-	-	+
		전통제조업 창업 수	-	-	+
	삶의 질 특성	평균임금			+
		문화시설 수			-
		공원 수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수들만 열거함

능 전공을 참조로 두었을 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전공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순환하는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성별 특성에서는 남성의 경우, 교육 특성에서는 4년제의 경우, 직업 특성에서는 정규직이거나 직업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정규직과 직업만족도 선호가 높을수록) 비수도권 순환형 이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어 쓰면 여성이거나, 전문대 출신, 비정규직, 그리고 직업만족도 수준이 낮을수록(직업만족도 선호가 낮을수록) 비수도권 순환형 이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 회귀형에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은 비수도권 순환형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났다. 교육특성에서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전공자, 즉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가질 경우 비수도권 회귀형 이주에는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4년제 출신, 정규직, 직업만족도 수

준이 높을수록(직업만족도 선호가 높을수록) 비수도권 회귀형 이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수도권 순환형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의 방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비수도권 청년층이 1차 유출 이후 다시 비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직업의 안정성 또는 만족도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1, 2차 유출없이 비수도권에서 순환하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유출형에서는 개인수준 변수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수도권 유출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들에는 4년제 대학(+), 교육-일자리 매치여부(-)만이 확인된다. 즉 4년제 대학 졸업 여부는 수도권 유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교육-일자리 매치는 수도권 유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시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비용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개인특성의 영향보다 지역특성에서 비롯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견인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수도권의 산업, 기업, 창업 등에서 비롯되는 일자리의 질, 직업 선택의 다양성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문남철, 2010; 심재한·김의준, 2012).

다음은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에 지역수준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이다. 비수도권 순환형에는 산업특성 중 주력제조업 특화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력제조업의 특화도가 높을수록 비수도권 청년층의 순환 또는 잔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 기업특성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 수, 창업특성에서는 지식서비스 창업 수, 전통제조업 창업 수 등의 변수들이 비수도권 순환형 이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중견기업 이상 기업이 많을수록 비수도권 순환형 이주에 부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은 역내 양질의 일자리가 비수도권 청년층, 특히 역내에서 고등-대학-일자리를 이어가는 청년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수도권 회귀형에서는 창업특성 가운데 지식기반 제조업 창업 활동 수준, 삶의 질 특성 중에서는 공원 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강하게 견인해 온 것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직업 선호도가 높은 지식기반제조업 창업 활성화는 청년층의 직업 수요 충족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비수도권 청년층의 회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창업특성 중 지식기반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의 창업 활성화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회귀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유출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변수는 창업특성에서 두드러졌다.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 활동이 활발할수록 수도권 유출형 이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게다가 전통제조업 창업 활동 수준 또한 높을수록 수도권 유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내 전통제조업 분야의 창업이 활발한 점, 그리고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시 교육-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던 점이 연계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사호석·우한성, 2020; 우한성·서대현, 2022). 삶의 질 특성에서는 유일하게 수도권 유출형 이주에서만 평균임금 변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는 평균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 산업특성에서는 주력제조업 특화도, 삶의 질 특성에서 문화시설 수가 수도권 유출형 이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력제조업의 특화 수준이 비수도권 순환형 이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도권 지역의 주력제조업 특화가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유도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5. 결론 및 함의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사회 자본의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 어젠더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의 문제는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정의의 문제로도 바라볼 수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지역발전은 복잡다단한 현상으로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우수한 청년인재 확보가 지역발전

의 핵심요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에 따른 지역의 인적자본 확충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 동력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수도권이 겪고 있는 청년인재 유출의 문제는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비수도권의 청년인재 유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방식의 유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분석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의 차이를 식별하고자 했다. 지역적 맥락이 고려된 세밀한 청년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의 논의를 차별화된 방식으로 보완하고 확장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청년인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실태 및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이주유형별 특성이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대표적으로 강원은 수도권 유출형 비중이 가장 큰 반면 비수도권 순환형 비중은 가장 작은 지역적 특성을 보였다. 울산의 경우는 수도권 유출 비중이 가장 작지만 비수도권 순환형 비중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비수도권 회귀형 비중이 가장 큰 편이었지만 비수도권 순환형 비중은 가장 작은 지역 중 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비수도권의 청년 인력 확보 정책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되는 이주유형별 결정요인들을 지역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조율하여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하고 효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전국 수준에서의 지역 간 이주와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주 특성을 개인 및 직업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전국 수준의 지역 간 이주에 비해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2차 이주(대학 → 일자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개인 특성 기준에서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 이슈가 반드시 고급인재의 유출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청년인재가 유출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지역 내 잔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직업 특성 기준에서 전국 수준의 2차 이주는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았으나,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2차 이주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다음은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각각의 이주유형과 개인수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전공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순환하는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이거나, 전문대 출신, 비정규직, 직업 만족도 선호가 낮을수록 비수도권 순환형 이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의 추정 결과는 비수도권 회귀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과는 모두 상반된 것으로 관찰된다. 정리해보면 비수도권 청년층이 1차 유출 이후 다시 비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경우 직업 안정성과 만족도가 이주 결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는 점, 반면 1, 2차 유출 없이 비수도권에서 순환하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열악한 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수도권 청년들은 잠재적 역외유출 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출신 청년인재들이 역내에서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유출형에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들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즉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개인수준 요인보다 지역수준에서 비롯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강하게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수준 변수들이 각각의 비수도권 청년층 이주 유형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순환형 이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변수에는 주력제조업 특화도가 관찰되었다. 즉 지역 일자리를 지탱하는 주력제조업의 특화 수준이 높을수록 역내 비수도권 청년층의 순환형 이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견기업 이상 기업이 많을수록 비수도권 순환형 이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내 양질의 일자리가 비수도권 청년층, 특히 역내에서 고등-대학-일자리를 이어가는 청년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기업과 지역고용정책이 긴밀하게 협력,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는 결과이다.

둘째, 비수도권 회귀형 이주는 지역 수준에서 창업 특성 중 지식기반제조업 창업활동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직업 선호도가 높은 지식기반제조업 창업 활성화는 청년층의 직업 수요 충족과 직업 선택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비수도권 청년층의 회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도권 유출형 이주에서는 지역 수준의 창업 특성 가운데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활동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활동의 공간 집중이 비수도권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비수도권 청년인재의 지속 순환과 잔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내린 주력제조업 기반의 활용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이 청년 기피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구조고도화뿐만 아니라 임금 및 근로조건,

배후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을 제고시키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청년층의 1차 유출 이후 지역으로의 회귀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역내 제조기반을 활용한 지식기반제조업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 청년인력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복잡다단한 의사결정 과정이다(박진경·김도형, 2020). 따라서 다양한 이주 선택의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적 맥락이 명시적으로 고려될 때 정책의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획일적인 접근에서 비롯되는 전방위적 청년지원정책은 오히려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대학 미진학자, 즉 고졸자의 인구이동도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분석에서는 비수도권의 청년층 범주에서 대졸자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의 개인수준 변수에서 다른 직업특성 요인들은 이주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호의 관점에서 다루었지만, 이주행위의 결과로부터 비롯되는 특성일 수 있어 결과해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주를 결정짓는 지역의 특성은 종착지(전입지) 관점뿐만 아니라 출발지(전출지) 특성의 차이와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향후 좀 더 보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

- 1) 정재현 외(2019)의 연구에서는 학업지 출신별 취업 이동 유형을 역내완결형, 회귀형, 유출형, 잔류형 등 4가지로 분류하여 현황까지만 파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논의 대상인 비수도권 청년층(고교 출신자)을 기준으로 이주유형을 단순화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2) 본 연구는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이 비수도권 청년층이라는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였다.

- 3) 우한성(2020)의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4)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 간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과잉 미스매치(교육수준<일자리수준), 적합(교육수준=일자리수준), 과소 미스매치(교육수준>일자리수준) 등의 척도를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5)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계분류 기준으로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10대 산업을 주력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조철 외, 2016; 우한성, 2022).
- 6) 지식기반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영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계분류 기준으로 지식기반제조업 11대 업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8대 업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하였다(김찬준 외, 2015; 우한성, 2020).
- 7) $LQ = (Q_i/Q_j)/(Q_i/Q_j)$, 이때 Q 는 전국의 전체 고용인원, Q_i 는 전국에서 i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원, Q_j 는 j 지역의 전체 고용인원, Q_{ij} 는 j 지역 i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원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기승·정민수, 2013,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1(2), pp.103-130.
- 김동현·최예슬·임업, 2012, “일반화외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지역 간 노동이동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28(3), pp.3-24.
- 김찬준·송하울·김홍석·변창욱·김민수, 2015,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제주 인적자본 재고 방안, 한국은행 제주본부.
- 김태환·김은란·이차희·남성우·표희진·박미래, 2020,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김태환·김은란·신휴석·이혜민·박미래·이혜진, 2021a, 지역별 고용 격차와 불균형,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김태환·김은란·신휴석·이혜민·박미래·이혜진, 2021b,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균형,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3.9.14.,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류장수, 2015, “지역 인재의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pp.1-23.
- 문남철, 2010,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이동과 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지* 44(4), pp.581-593.
- 문영만·홍장표, 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2), pp.165-187.
- 박우식·박상우·엄창욱, 2011, “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분석: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4), pp.2247-2274.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호석·우한성, 2020, “청년층 교육-일자리 매치의 공간적 특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특성 및 지역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5(5), pp.501-519.
- 심재현·김의준, 2012,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요인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취업 이동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75, pp.37-51.
- 우한성, 2020, 지식기반산업 육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함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 우한성, 2022, “제조업 집적의 외부효과가 지역경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단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1), pp.41-59.
- 우한성·서대현, 2022,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공간분포 특성과 고용증가 효과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4), pp.600-616.
- 유정진, 2006, “위계적 선형모형의 이해와 활용,” *아동학회지* 27(3), pp.169-187.
- 이경환·김태환·이우민·김은정, 2014,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근린환경과 보행통행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도시연구* 15(3), pp.95-109.
- 이다예·이희연, 2016, “농산물 직거래 결정 요인 및 농산물 매출액 증대 효과 분석,” *농촌경제* 39(1), pp.89-116.
- 이상림, 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찬영·이흥후, 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4), pp.143-169.
- 이희연·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제2판), 고양: 문우사.

- 이희연·심재현, 2009, “서울시 젠트리파이어의 주거이동 패턴과 이주 결정요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3), pp.15-26.
- 정재현·동진우·김기승, 2019, “고학력 노동자의 지역 이동에 관한 실증연구: 비수도권 인재유출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25(4), pp.55-78.
- 조철·서동혁·장석인·정만태·정은미·김경유·김종기·박상수·이경숙·이입자·이준·장원준·홍성인·남장근·주대영·김양평, 2016,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 한국고용정보원, 2022,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2023, 지역산업과 고용.
- Albouy, D. and Faberman, R., 2018, *Skills, Migration, and Urban Amenities over the Life Cycle*, 2018 Meeting Papers 1051,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 Bueno, X. and Prieto-Rosas, V., 2019, *Migration Theories*, Gu, Danan; DUPRE, Mathew E.(Eds), Encyclopedia of Gerontology and Population Aging, Springer, Cham.
- Chen, Y. and Rosenthal, S., 2008, “Local amenities and life-cycle migration: Do people move for jobs or fun?” *Journal of Urban Economics* 64(2008), pp.519-537.
- Czaika, M. and Parsons, C., 2017, “The Gravity of High-Skilled Migration Policies,” *Demography* 54(2), pp.603-630.
- Etzo, I., 2011, “The determinants of the recent interregional migration flows in Italy: A panel data analysi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1(5), pp.946-966.
- Faggian, A. and McCann, P., 2009, “Human Capital, Graduate Migration and Innovation in British Regio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3(2), pp.317-333.
- Keereman, F. and Szekely, I., 2010, *Five Years of an Enlarged EU: A Positive Sum Game*, Berlin: Springer-Verlag, pp.63-94.
- Lulle, A., Janta, H. and Emilsson, H., 2021,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European youth migration: human capital outcomes, skills and competenc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7(8), pp.1725-1739.
- Maier, G. and Weiss, P., 1991, *The discrete choice approach to migration modeling*, Chapter 2 in Stillwell, J.C.H. and Congdon, P.(eds.), *Migration Models: Macro and Macro Approaches*, Belhaven Press, London, pp.17-33.
- Massey, D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431-466.
- Muro, M. and Perry, A., 2020, *Regional Divergence Is More Than An Economic Dilemma – It’s a Civil Rights Issue*, Brookings, Washington, D.C.
- Stark, O. and Bloom, DE., 1985, “The new economics of labor mi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5(2), pp.173-178.
- Stillwell, J., 2005, *Inter-regional migration modeling - a review and assessment*, 45th Congress of the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 교신: 우한성,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이메일: woo@kicox.or.kr
- Correspondence: Hansoun Woo, Industrial Loc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39 Cheomdan-no, Dong-gu, Daegu, 41068, Korea, E-mail: woo@kicox.or.kr
- 최초투고일 2023년 12월 04일
수정일 2023년 12월 15일
최종접수일 2023년 12월 18일